논어 17편 양화 1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鄙夫！可與事君也與哉？其未得之也，患得之；既得之，患失之。苟患失之，無所不至矣！」

독음 · 자왈 비부 가여사군야여재 기미득지야 환득지 기득지 환실지 구환실지 무소부지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벼슬을 얻기 전에는 못 얻을까 걱정하고 얻은 뒤에는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, 지위를 지키려 무슨 일이든 하게 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鄙 다라울 비 비 / 夫 지아비 부 부

可 옳을 가 가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事 일 사 사 / 君 임금 군

也 어조사 야 / 哉 비로소 재 재 / 其 그 기 / 未 아닐 미 미

得 얻을 득 득 / 之 갈 지 / 患 근심 환 환 / 既 이미 기

失 잃을 실 실 / 苟 진실로 구 구 / 無 없을 무 무 / 所 바 소 소

不 아닐 불 / 至 이를 지 지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